



가무악 '환생' 21~23일 예술의 전당

죽음의 미학 '형상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가무악 '환생'이 21일~23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중견 안무가 국수호 씨가 극의 대본과 안무를 직접 맡은 이 공연은 대형 북을 주요한 표현수단으로 택했다. 특히 기존 가무악보다 북을 이용한 타악의 울림이 강하게 표현되는데, 장엄한 북소리와 아쟁과 바이올린의 혼령무, 승무의 동작을 현대화 한 춤사위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탄생의 신비, 삶의 고뇌와 환희, 그리고 죽음의 경이심을 하나의 사이클로 '인간의 삶은 소멸되지 않고 전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1장 <탄생>에서는 인간 탄생의 기원과 축원의 춤과 소리가 펼쳐진다. 무속적인 방법인 예언이나 굿 등을 통해서 풀이하게 되는데, 생의 기원, 생성, 탄생의 의미를 다룬다. 2장 <살>에서는 환생된 현재 삶의 편리로써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아픔들이 펼쳐진다. 삶 속에서 갖는 또 다른 환생에 대한 기원들이 환상처럼 극락과 지옥의 형상들로 보여진다. 불교음악과 김로랑의 지옥, 극락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 삶의 편리들을 보여준다.

3장 <죽음 그리고 환생>은 죽음 속에서 해매는 영혼들의 춤, 영혼들과 그들의 고통이 표현된다. 인간들의 고통은 비로 영혼의 울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머리를 푸는 형상 등으로 해매는 영혼들, 한국적인 죽음의 미학을 형상화한다. 02523-0987 이은자 기자

“스님도 목사도 법기보살 현신”

장편소설 '담무갈' 펴낸 남지심 씨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전라남도의 한 암자에서 집필에만 전념해 온 소설가 남지심 씨가 장편소설 <담무갈> (전 4권, 푸른숲)을 펴냈다.

소설 <우담바라> 출간 이후 13년 만에 발표된 신작 소설 <담무갈>은 자본이 권력이자 신앙이 된 시대에서 우직하게 혹은 현명하게 종교적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를 역사소설 형식으로 끼워 넣었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태어나고 죽는다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날로 황폐해지는 공동체적 삶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의 현실적 의미까지를 진지하고 폭넓은 시선으로 성찰하고 있다



'우담바라' 이후 13년만의 작품 — 소설의 골격 원불교 삼동원리

백족화상을 <담무갈> 속에 끌어들이었다. 그랬더니 <우담바라> 속에 있던 인물들이 저마다 손을 흔들며 <담무갈> 속으로 들어왔다. 마치 10년간 잊고 있던 자신들의 존재를 나에게 일깨워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담무갈>을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전작인 <우담바라>와 연계되리라는 생각지 못했다. 원래는 10년 전 한 원불교신도의 부탁으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를 다룬 소설을 쓰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담바라>의 후편이 되어 버렸다.

점? <우담바라>는 개인적인 구도과정, 즉 개인의 완성 쪽에 밀착했었다. 그때는 40대였으니까 개인의 삶에 더 치열히 고민했던 것 같다. 50대 후반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런지 이번 <담무갈>은 개인적 고민보다는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두었다. 각각의 종교가 그 자체로 저마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이다.

소설 속에서 실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 실제로 나는 이같은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도와 서로의 완성을 이루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통하지만 한강은 한강대로, 압록강은 압록강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에 머물면서 9월경부터 다음 작품 다음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래대 장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아마 내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 작품을 쓴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너무 힘이 든다.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조용히 쉬면서 개인수행과 수행공동체 <우리는선우>의 일도 할 달는 때까지 도울 것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ist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일반적으로 시간을 강으로 비유한다. 시간도 강처럼 흐르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 바로 삼매의 시간이고 깨달음의 시간이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중에서 회암의 시간관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말은 '九世十世互相觀', 즉 '흐르는 시간(九世)과 순수한 시간(十世)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공해진다(觀)' 하는 구절이다. 흐르는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가 생겨나고, 그것을 다시 세분하여 아홉 개의 시간관(九世)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의상의 스승 지엄은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아들과 손자가 밑에서 기와를 나르는데, 자기가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과거이다. 과거이기 때문에 오직 한 자리(一位)일 뿐이다. 아버지는 과거의 현재요, 현재의 과거이다. 그러므로 아위(二位)이다. 중간자인 나는 과거의 미래요, 현재의 현재요, 미래의 과거이므로 삼위(三位)를 갖추고 있다. 아들은 현재의 미래요, 미래의 현재이므로 이위(二位)를 갖추고 있다. 손자는 미래이므로 오직 일위(一位)일 뿐이다."

영원한 주제 '시간' (3)

깨달음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마치 영문법의 동사 시제처럼 회암학은 흐르는 시간을 이렇게 아홉 가지로 세분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다른 차원의 시간인 십세(十世)가 있다. 이것이 삼승교(三乘敎)와 일승교(一乘敎)의 차이이며, 삼차원과 사차원을 가르치는 경계이다. 원효대사는 사제, 연기의 교훈을 도그마적으로 신봉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사변적 논리를 강조하면 낮은 차원의 상상에 갇히고 만다고 했다. 그런데 권견과 대입이 없는 원효회통의 주제요 화정(和靜)의 주제인 우리의 진여한 마음에서 보면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의상대사의 십성제자(十聖弟子) 중의 한 사람인 지봉(智鳳)은 자신이 체험한 '순수시간의 경험'을 스승 의상에게 아래와 같이 고했다.

"제가 태백산 미리암 굴에서 화엄관을 두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큰 멧돼지가 굴의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경상시와 같이 목각존상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불을 올렸더니, 그 목각존상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 앞을 지나간 멧돼지는 네 과거의 몸이다. 나는 네가 미래에 받을 과보(果報)로서의 부처가 되리라.' 저는 목각존상의 말을 듣고 즉각 '삼체가 일체(一體)'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의상은 제자의 그릇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인증의 표시로 법계도의 도인(圖印)을 그에게 주었다. 삼승의 흐르는 시간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멧돼지에서 인간이 되고 인간에서 부처가 된다. 하지만 일승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멧돼지 속에 이미 인간과 부처가 다 들어있다. 일체 중생 속에 불성이 있다는 말도 어떤 뜻일 것이다. 지봉의 이야기는 깨달음의 핵심이 시간체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간체험의 핵심은 생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불교학평론가

조선 회화·글씨 '감상기회'

21일부터 화고재회랑

경매 '취성도' 첫 공개

경매(競價) 정선, 단원(檀園) 김홍도 등 조선시대 미술품을 빛낸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명화 개인소장품 특별 공개전'이 21일부터 서울 인사동 화고재회랑에서 열린다. 전시에 소개되는 화가는 정선, 관아재 조영석, 공재 윤두서, 연담 김명국, 현재 심사정, 능호관 이인상, 호생관 최복, 김홍도 등 8명이다. 회화 33점과 글씨 14점 등 47점이 출품되며 모두 개인 소장품들이다.

전시작중 경매의 산수채색화 <취성도(聚星圖)>는 일만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취성도>는 중국 후한대의 명사인 진식(陳希)이 구술(鞠術)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만남을 증언하듯 역성(德星)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고사를 나타낸 작품이다. 관아재의 <선정방우도>는 눈 내린 겨울 어느 날에 한 선비가 침거중인 벗을 찾아와 고담(高談)을 나누는 모습을 잡아냈고, 석공이 돌을 깨는 공재의 <석공공석도(石工攻石圖)>와 <달마도> 등도 볼만하다. 이번 전시는 미술평론가 유홍준(영남대 교수) 씨가 조선중기와 후기를 풍미한 화가 8명의 예술적 성취를 평전으로 엮은 <화인열전(畫人列傳) 1, 2> 역사비평사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02739-4937.



관아재 조영석의 '선정방우도'

불교TV 위성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

불교TV(사장 이수태)가 위성방송 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15일 불교TV를 비롯한 49개의 비디오 채널과 60개 오디오 채널 등 109개 채널을 1차로 선정 발표했다. 이에 10월부터는 위성으로도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가시청권이 국외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TV는 또 인터넷 포교매체인 불교인터넷 방송(btn)을 18일 개국, 본방송에 들어갔다. 인터넷 영상 포교를 위해 19시간 실시간 방송과 5개 채널 25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인터넷 영상 포교를 시작할 것이다.

한편 이번 인터넷 방송의 개국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으로 불교 TV는 3개의 영상 포교 매체를 보유하게 됐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ista.com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편의 4배, 두꺼우나 피어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 x 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직물성질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삼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